

SDI 정책리포트

2009년 서울경제 전망

2008. 12. 29 제28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목 차 > —

요약

- I. 국내외 경제 전망 및 여건 변화
- II.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III. 2009년 서울경제 전망과 시사점

요 약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1.9%로 급락하여 경기침체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금융 불안과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 되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기반 중국 등 신흥개도국들도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성장 모멘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세계 경기회복에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2.0~3.0%까지 다양하게 예측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향추세라 성장 모멘텀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물경제 위기 확산에 대한 경기위축 정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가운데 최근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조사 결과, 2008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국보다 13.3P 낮은 63.7로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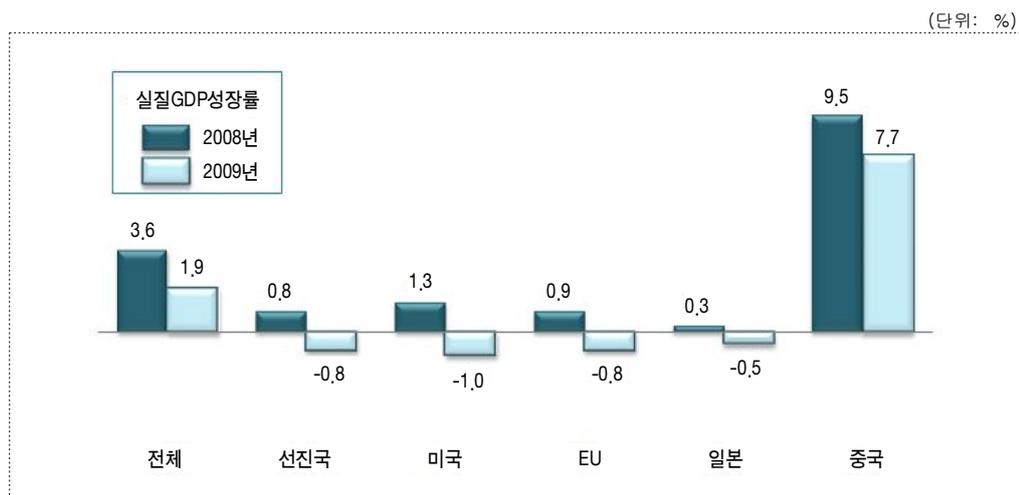
1년 후 서울 지역의 경기를 반영하는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56.8로 전국 87.6보다 30.8P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민은 향후 서울의 지역 경기를 전국 경기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IMF 경제위기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교한 조사결과, 10명 중 7명(67.9%)은 현재의 경기상황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9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1.0%로 마이너스 성장 진입이 예상된다. 다만, 상반기(-1.7%)에 이어 하반기(-0.3%)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내수 둔화에 대비하여 서울시는 생계형 서민에 대한 재정지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6개 광역방사축과 서울시내 소순환선을 근간으로 한 급행철도 등에 대규모 SOC 투자가 필요하다. 향후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풍부한 인적자본과 R&D를 이용하여 녹색성장에 기초한 전략형 그린에코산업(환경, 에너지, 바이오)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도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문화·관광, 애니메이션, 디자인, 패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 국내외 경제 전망 및 여건변화

세계 경제성장률이 3.6%에서 1.9%로 떨어져 성장세 둔화 전망

-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1.9%로 경기침체가 심각할 전망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금융 불안 및 주택경기 부진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2008년 하반기 이후 이미 마이너스 성장권에 진입
 - 제조업 기반 경제 구조를 가진 중국 및 신흥개도국들도 실물경제 침체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의 장기화 및 디플레이션으로, 경제 회복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경기는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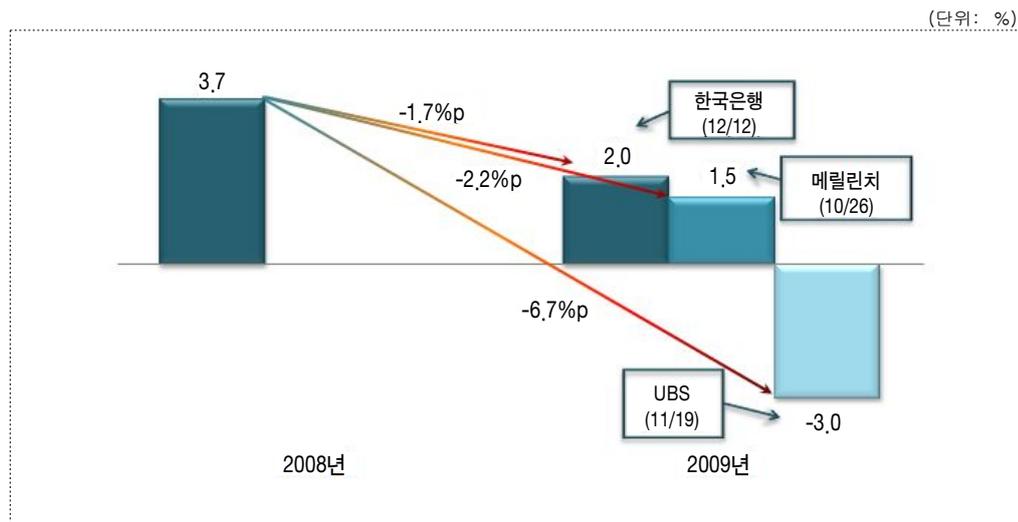


자료: 2009년 경제전망, 한국은행(2008.12.12)

[그림 1] 2009년 세계경제 전망

2009년 국내경제 전망도 2000년 이후 최악

-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2.0~3.0%대로 성장 모멘텀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국내외 기관들은 2009년 국내 경제전망을 최고 2.0%(한은)에서 최저 -3.0%(UBS 증권)까지 전망
 - 실물경제 위기 확산에 의한 경기위축 정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 특히, UBS 증권 등 해외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3.0%로 전망하는 등 IMF 이후 최저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
 - 그러나 한은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확대,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금융권 시장 안정 등의 부양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2.0%로 전망



[그림 2] 2009년 국내 경제성장 전망

소비, 투자, 수출 등 주요 거시지표가 총체적으로 침체

- 2009년 전국의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성장률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어 경기침체를 주도
 - 소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한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비는 2008년 1.5%에서 2009년 연간 0.8%로 큰 폭으로 감소
 - 고용사정 악화 등의 실물경제를 반영할 경우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될 조짐
 - 투자: 설비투자의 경우 성장세 감소와 원화 약세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할 전망
 - 투자부문은 전반적으로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인 연간 -1.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및 국내수요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흑자규모 확대 예상. 서비스 수지도 적자규모 축소 예상
 - 그러나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교역신장률 둔화로, 수출은 2008년 3.6%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된 연간 1.3%의 증가를 나타낼 전망



자료 : 2009년 경제전망, 한국은행(2008.12.12)

주 : 2008년 증가율은 잠정치임.

[그림 3] 주요 경제부문별 2009년 국내 성장 전망

- 경기침체 속에 국내외 경제여건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이 커 경기회복이 조기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국내 경제여건 악화는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동반 진행되고 있어 국내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둔화될 전망

<표 1> 2009년 상반기 국내외 주요 경제여건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국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상승으로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축소, 경상수지 흑자기조 예상 •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경기 부진으로 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주도 • 차기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취임 이후 한·미 간 통상마찰 급증 예상
국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 침체 가속화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로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 한·미, 한·중·일 통화스와프 확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제로금리·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 맞물리면서 달러화 유동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존으로 환율 급등 가능성 존재 • 세계경제의 둔화로 개도국 및 선진국 간의 갈등 예상

II.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소비자태도지수」가 63.7로 침체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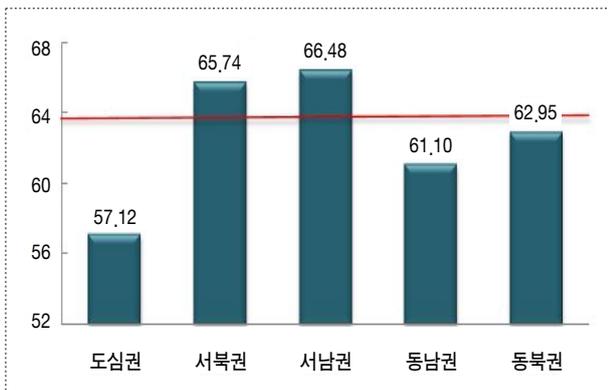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불안감 고조, 실물경기의 본격적인 둔화 우려로 2008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63.7로 전국지수 77.0보다 낮은 상황

※ 전국지수는 삼성경제연구소 2008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를 이용하여 환산

- 서울의 5개 권역별 「소비자태도지수」 조사 결과, 서남권(66.5)과 서북권(65.7)에서 서울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모두 전국(77.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서울경제의 어려움을 반영
- 특히, 도심권은 57.12로 5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준. 그 다음에 동남권(61.10), 동북권(62.95)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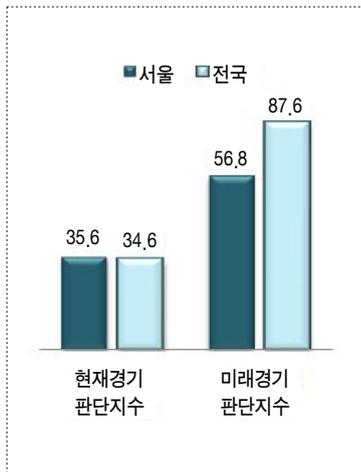
[그림 4] 서울 및 전국의 소비자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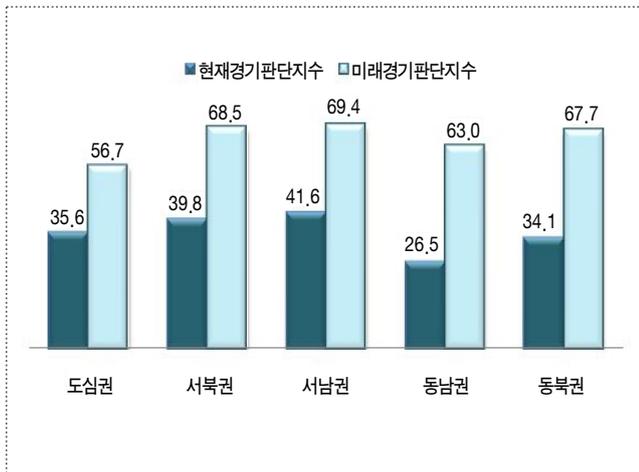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5대 권역별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2008년 4/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도 각각 35.6과 66.8로, 전국의 34.6과 87.6보다 더 심각한 수준

-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국보다 30.8p 낮게 나타나, 현재보다 1년 후 서울의 경기가 전국보다 더 비관적
- 서울의 5대 권역 모두 「미래경기판단지수」가 전국보다 낮은 수준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동남권이 26.5로 가장 낮으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도심권이 56.7로 가장 낮음.
- 서남권이 현재와 미래의 경기에 대해 가장 덜 비관적인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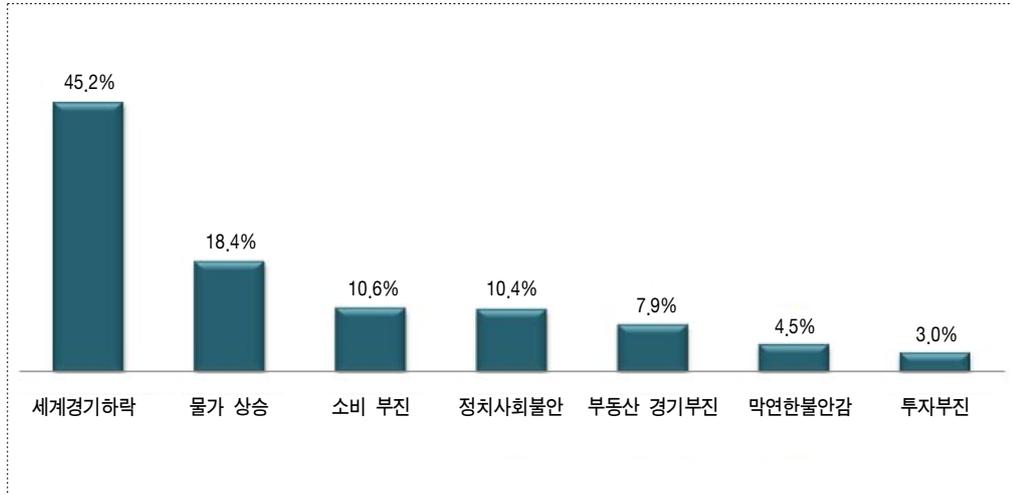


[그림 6] 서울 및 전국의 현재 및 미래경기판단지수



[그림 7] 서울의 5대 권역별 현재 및 미래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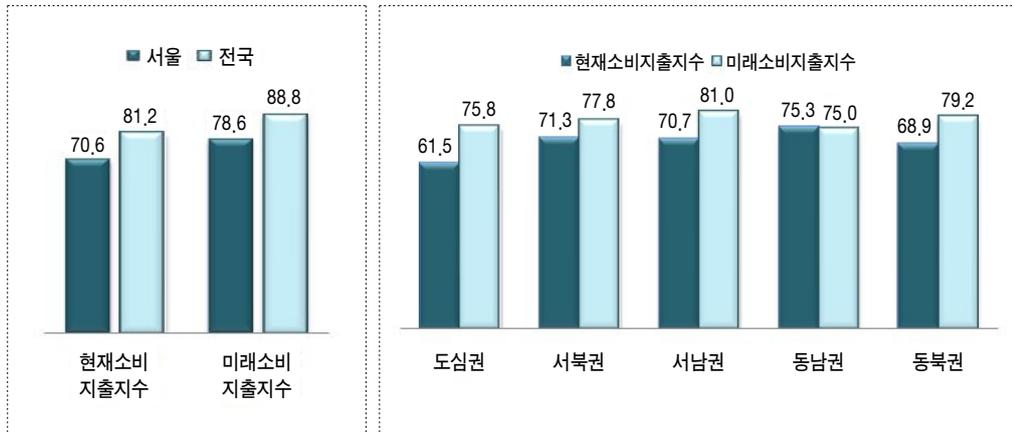
- 서울 지역 662개 가구 중 45.2%가 '세계경기 하락'을 1년 후 경기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
- 다음으로 '물가 상승'(18.4%), '소비 부진'(10.6%), '정치사회 불안'(10.4%) 등의 순으로 지목



[그림 8] 1년 후 경기 악화 이유(서울지역 662가구)

의류비→식비→교통·통신비 순으로 소비축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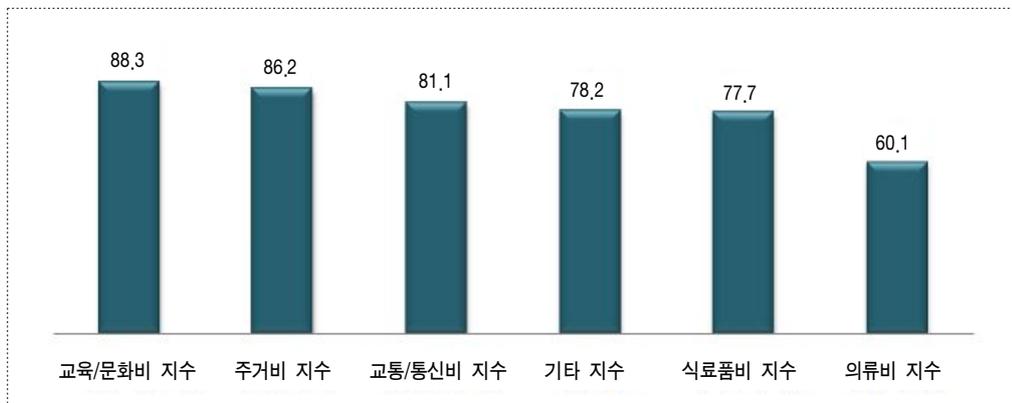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78.6으로, 소비지출이 의류비→식비→교통·통신비 등의 순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서울의 2008년 4/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70.6으로, 현재의 소비지출이 전국(81.6)보다 더욱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도심권이 61.5로 가장 낮고 동남권이 75.3으로 가장 높음.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78.6으로, 전국(88.8)보다 11.0p 낮아 향후 소비지출 심리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동남권이 75.0으로 가장 낮고 서남권이 81.0으로 가장 높음.



[그림 9] 서울 및 전국의 현재 및 미래소비지출지수

[그림 10] 서울의 5대 권역별 현재 및 미래소비지출지수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의류비'(60.1)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식료품비'(77.7), '기타'(78.2), '교통/통신비'(81.1)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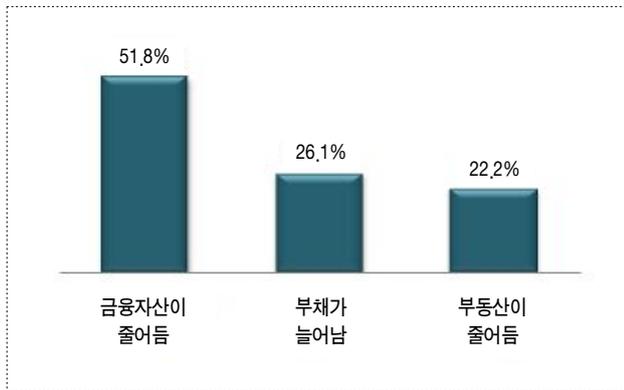
[그림 11]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 순자산 급감 가구 중 51.8%가 '금융자산 감소'를 주요인으로 지목
 - 순자산 규모의 증가 여부를 나타내는 「순자산지수」는 76.2를 기록
 - 이는 최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서울 지역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하락한 것을 반영

- 전체 조사대상 1000가구 중 1년 전보다 순자산 규모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가 51.0%
 - 이 중 51.8%가 '금융자산이 줄었다'를 순자산 감소의 주요인으로 응답
 - 그 외 '부채가 늘었다'(26.1%), '부동산이 줄었다'(22.2%)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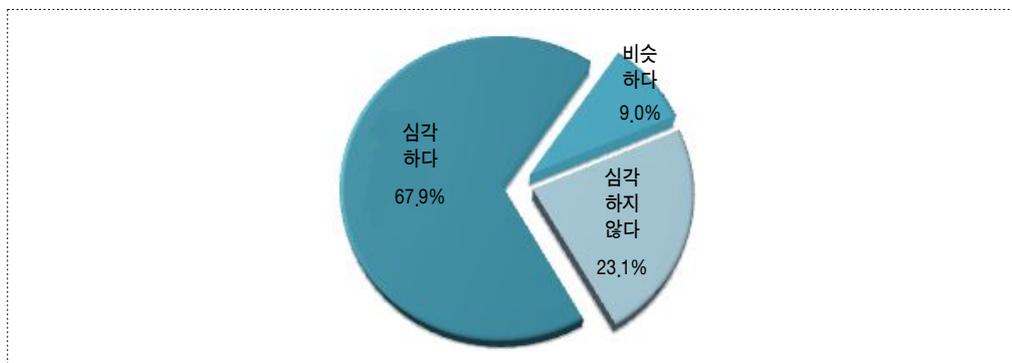
[그림 12] 순자산 규모 증가여부



[그림 13] 순자산 감소 이유(510가구)

IMF 경제위기 때 보다 현재 경제상황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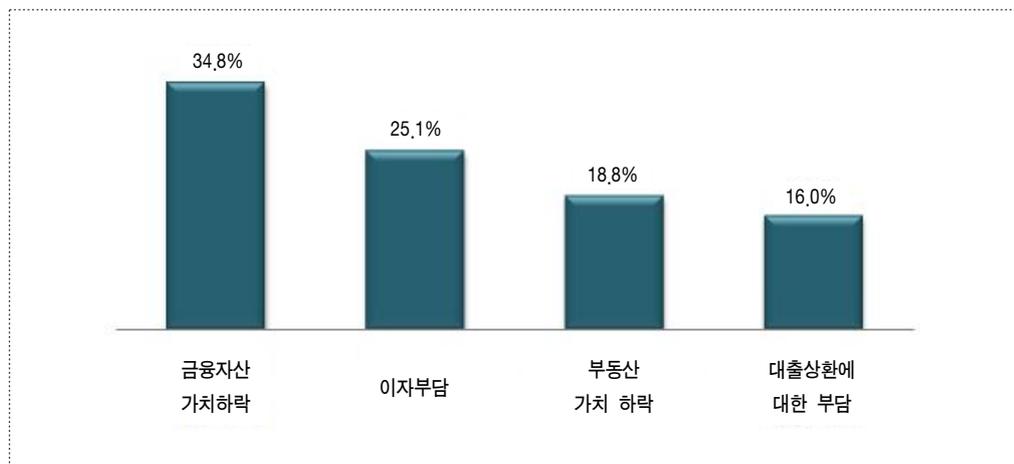
- IMF 경제위기와 비교 서울시민 67.9%가 현재 경제상황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그림 14] IMF 경제위기 대비 현재 서울의 경기상황

□ 자산가치 하락으로 최근 가계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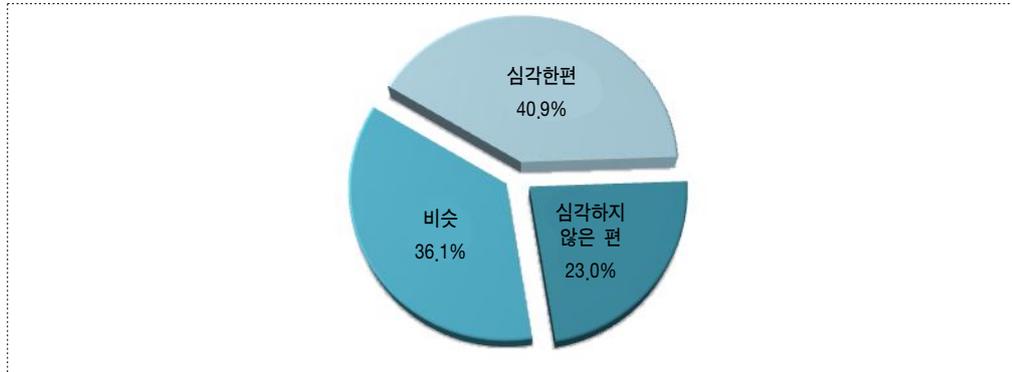
-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현재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은 '금융자산 가치 하락'(34.8%)
 - 다음으로 '이자 부담'(25.1%), '부동산 가치 하락'(18.8%), '대출상환 부담'(16.0%)의 순



[그림 15] 가계 부담 요인

□ 서울시민은 언론보도보다 체감경기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

- 현재 경기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응답가구의 체감 경기의 일치 정도를 서울시민에게 묻는 질문에, 40.9%가 '언론보도 내용보다 심각한 편'으로 응답
 - 다음으로 '언론보도와 비슷하다(36.1%)', '언론보도 내용보다 심각하지 않은 편(23.0%)'의 순



[그림 16] 언론보도와 체감경기의 일치 정도

- 서울시민 67%가 경기회복시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 시기에 대해 '2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7.0%를 기록해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3년은 걸릴 것이다'가 절반 이상인 52.0%로 상당부분 차지



[그림 17] 예상 경기 회복 시기

- 서울 지역의 소비자 체감경기 조사(2008.12.1~5)는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
- 「소비자태도지수」가 기준치 100을 상회할 경우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판단 및 향후 경기에 대한 예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의미

Ⅲ. 2009년 서울경제 전망과 시사점

1. 서울경제 전망

2009년도 서울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세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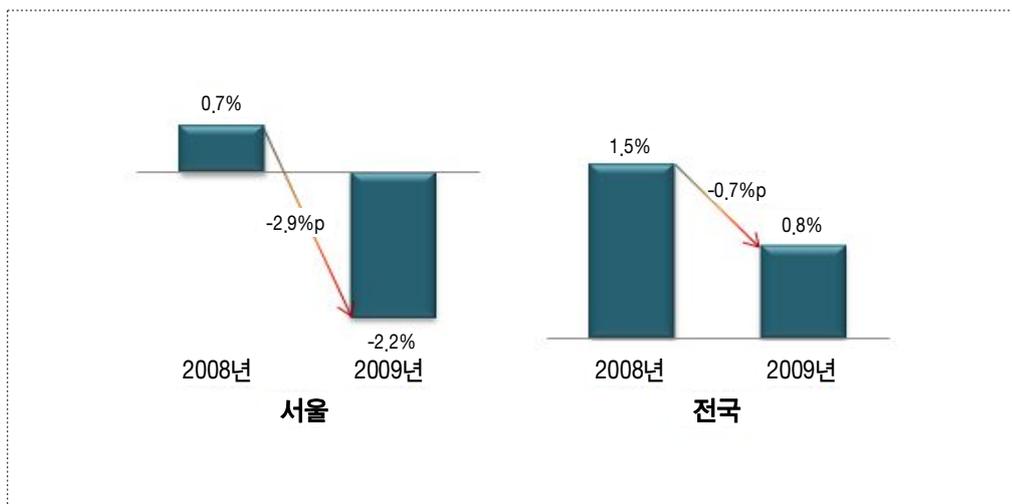
- 전국 성장률 2.0%에 비해 서울의 성장률이 더 비관적
 - 서울의 2009년 성장률은 연간 -1.0%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상반기 -1.7%의 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도 -0.3%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나 점차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최근 3년(2004~2006년)간 서울의 성장률은 전국 성장률의 약 1/3 수준인 36.3%로 경기침체 국면의 크기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
 - 즉, 2009년 전국 성장률을 2.0%(한은, 2008.12.12)로 가정할 경우, 서비스업과 소비 위주의 서울경제는 전반적인 내수침체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급락할 것으로 예상
- 실질소득 감소로 2009년 서울의 가계소비는 -2.2%로 감소 예상
 - 국내 및 서울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전국(0.8%)에 비해 서울의 내수 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서울 지역의 마이너스 성장세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2009년 서울의 가계소비 지출은 연간 -2.2%로 내수침체 심화 전망
 -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계소비 지출은 상반기 -2.7%에 이어 하반기에도 -1.6%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전망



자료: 서울은 SDI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 2009년 경제전망 (2008.12.12) 참조

[그림 18] 2009년 서울 및 전국 성장 전망

- 소비부문에서 보인 큰 폭의 하락세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기인
- 서울의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불변지수 증가율은 최근 2개월(9~10월) 간 각각 -2.6%와 -4.1% 기록, 본격적인 내수 둔화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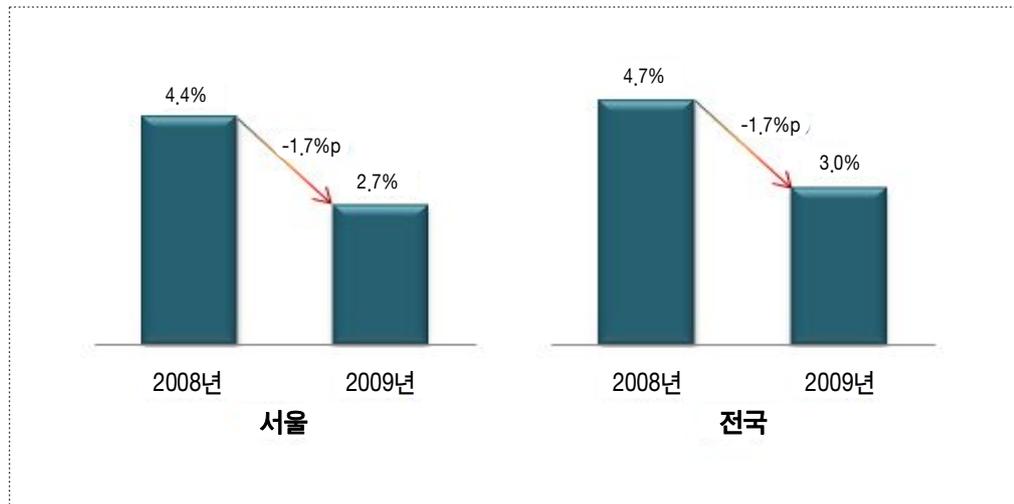
자료: 서울은 SDI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 2009년 경제전망 (2008.12.12) 참조

[그림 19] 2009년 서울 및 전국 소비 전망

물가 급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2.7%로 크게 하락할 전망

-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로 유가급락이 지속되고 있어 2009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 하락세의 지속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반 하락세 등이 환율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
- 물가안정 기조와 함께 국제금융 위기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내수경기 위축 심화 등으로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우려 증대
 - 서울의 물가 수준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인 -1.7%p 하락할 것으로 예상



자료: 서울은 SDI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 2009년 경제전망 (2008.12.12) 참조

[그림 20] 2009년 서울 및 전국 물가 전망

2. 정책적 시사점

서울경제의 급격한 둔화에 대비하여 생계형 서민에 대한 재정대책 시급

- 내수침체 둔화에 대비하여 재정운용 규모 확대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필요
 - 서울은 서비스업 및 소비 위주의 산업 구조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가시화에 따른 내수침체를 둔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운용 확대가 시급
 - 2009년 서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서울시민의 체감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마이너스로 성장률 감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계형 서민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책 시급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 SOC 투자 적극 검토

- 철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수도권 연계 대규모 SOC 투자 사업 필요
 -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전국 대비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둔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및 고용유발 창출효과가 가장 큰 SOC 투자 확대
 - 수도권 6개 광역방사축과 서울시내 소순환선을 근간으로 하는 급행철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 필요
 - 수도권의 교통혼잡 완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기존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하부의 지하 고속도로화를 추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린에코 산업 발굴 및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 육성

- 녹색성장에 기초한 전략형 그린에코 산업과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 지원으로 성장 원동력 창출
 - 향후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및 R&D에 기초한 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그린에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할 필요
 - 도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문화·관광, 애니메이션, 디자인, 패션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서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